

日本の 農村工業開發과 波及効果

張 炳 翼

經 濟 學 科

(1985. 4. 30 접수)

〈要 約〉

本稿는 日本의 農村工業化의 経緯, 政策 및 그 波及效果에 對해서 檢討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하였다.

(1) 日本의 農村工業化는 高度成長에 依한 大都市의 過密化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試圖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高度成長과 併行하여 長期間에 걸친 政府와 地方公共團體의 各種支援下에 大企業의 分工場 및 下請工場이 農村地域에 進出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2) 日本의 農村工業化는 農家階層間 所得格差와 都・農間 所得格差縮小에 큰 役割을 하였다. 그러나 農村勞動力의 老齡化, 婦女化, 兼業農의 増加로 因한 農業生産性の 低下, 産業公害의 農村擴散等, 否定的 効果도 크다.

(3)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은 農業構造改善이라는 元來目標을 達成하지 못했다.

(4)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의 經驗은 韓國의 農村工業開發을 爲한 政策樹立에 좋은 敎訓이 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es in Japan and Its Diffusion Effects

Chang, Byung-Ik

Dept. of Economics

(Received April 30, 1985)

〈Abstract〉

This treatise aims to examine the complicated circumstances, policies and diffusion effects of rural industrialization in Japa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Rural industrialization in Japan was attempted to solve overpopulated city problems raised by her high economic growth. And it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advance of the branch factories and subcontract factories of large firms into rural areas under varieties of long-pending supports by government and local public entities, along with keeping pace with her high economic growth.

(2) Rural industrialization in Japan has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reduction of income differentials not only between high and low bracket in rural but also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But it has also brought about many negative effects what is called, gerontization and feminization of farm workers, the decreas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resulted from the increase farmers having subsidiary jobs, and diffusion of industrial pollution into rural areas, etc.

(3) They could not accomplish, their original purpose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es in Japan.

(4) Some experiences obtained from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es in Japan will become a good lesson in policy-making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es in Korea.

I. 序 論

最近 農村地域의 工業을 開發하는 問題가 重要한 政策課題의 하나로서 우리들에게 큰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農村工業에 對한 最近의 政策的 關心은 農村經濟의 側面과 國民經濟의 側面에서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農村經濟의 側面에서 보면 農村工業開發은 農村의 低所得 農家를 包含한 零細小農家의 所得(勞賃所得 혹은 農外就業所得)을 增大시키기 爲한 政策手段의 하나이다. 農村工業開發을 通하여 農村地域內의 새로운 雇用機會를 創出하는 것은 특히 農民에게 있어서 그들의 農外工場就業을 促進시켜 農外所得增大에 도움이 되고 또한 最近 擴大傾向을 보이고 있는 農家間의 所得格差의 縮小에도 寄與할 수 있다고 하는 點이 強調되고 있다. 아울러 農村工業開發은 農家の 兼業化를 促進시켜 農民의 脫農을 막는 政策手段이기 때문에 長期的으로는 農業構造改編에 까지도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國民經濟의 側面으로 보면 農村工業開發은 地域經濟의 均衡發展에 寄與한다고 하는 큰 意味를 갖는다. 農村工業開發은 低開發農村地域을 集中的으로 開發하여 地域間의 均衡發展에 寄與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積極的으로 農村地域의 未開發賦存資源 혹은 限界資源의 利用에 까지도 寄與한다고 할 수 있다. 農村工業開發은 특히 最近 社會의 問題로 擡頭되고 있는 大都市의 過密化를 抑制하는 政策手段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意味를 가지고 있다.

1960年代부터 1970年代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高度成長은 首都의 地方大都市를 中心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極端의 都市化 — 工業化를 強化시켜 왔다. 그 結果 나타난 大都市過密化는 企業活動의 社會的 費用을 增大시키기 때문에 大都市中心의 企業活動을 地域的으로 分散하여 農村人口의 過渡한 大都市集中을 抑制시킨다는 問題가 政策的으로 重要한 課題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政府는 工場配置法(法律 第3069號, 1977年 制定)을 制定·公布하여 1979년부터 이 法律을 適用시켜 大都市 및 그 周邊地域에 새로운 工場建設을 強力히 規制할 뿐만 아니라 既存工場의 地方分散까지도 推進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工場의 地方分散을 積極적으로 推進하지 않으면 안되는 現實이 農村地域을 새로운 工業立地로서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契機가 되고 있다.

그러나 農村工業開發에 關하여 增大하여 가는 社會的·政策的 關心에도 不具하고 農村工業 혹은 工業立地로서의 農村地域에 對한 理論的 研究의 不足과 資料의 制約은 우리들에게 農村工業의 農村開發에 對한 知識을 매우 皮相的水準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또한 農村工業에 對한 研究資料의 不足은 우리들의 工業開發에 關한 論議中에서 地域의 概念이 빠져 있는 原因이 되고 있다. 例를 들면 工業開發과 關連하여 大企業, 中小企業에 關해서는 論議하고 또 重化學工業, 纖維工業 혹은 機械工業 등에 關해서 論議해 왔지만, 地域의 概念이 包含된 都市工業 혹은 農村工業에 對한 論議는 지금까지 매우 未治하였다.

이와 本研究는 韓國의 農村工業政策樹立에 도움이 되고자 戶當耕地面積 1ha 以下の 零細小農의 構成比率等, 農業構造面에서 有似한 點이 많은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의 經緯, 政策 및 그 波及效果에 對해서 分析하기로 한다.

II. 農村工業化的 展開

1. 農村工業開發의 經緯

戰後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은 1950年代 後半부터 高度成長과 함께 시작되어 60年代에 들어와서 政府의 高

度成長政策에 의하여 急速히 展開되었다.

60年代 前半의 政府의 工業地方分散에 關한 立法措置를 돌이켜 보면, 低開發地域工業開發促進法(61年), 新産業都市建設促進法(62年) 및 工業整備特別地域整備促進法(64年) 등, 이른바 地域立法의 制定을 들 수 있다.

이들 立法措置는 소위 據點開發方式에 依한 工業의 地方分散을 促進하기 爲한 것이었다. 6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上記法律에 依據하는 것, 혹은 依據하지 않는 것 까지도 包含하여 工場의 地方進出이 急速히 불을 이루었다. 그 主된 理由는 既存工場地帶에서의 勞動力 및 工業用地調達が 困難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即, 6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高度經濟成長에 依한 大都市에의 資本과 人口의 集積·集中이 過渡하게 되어 그 結果, 都市의 過密化가 進展됨에 따라서 地價의 昂騰 等으로 因하여 工業用地의 確保가 困難하였을 뿐만 아니라, 工業用水의 確保에도 支障을 招來하게 되었으며, 또한 公害, 交通難, 住宅難 等の 制限이 加하여 졌으며, 또한 勞動力不足現狀이 深刻한 問題로 登場하였다.

따라서 工業立地가 어쩔 수 없이 農村地域에 追求되었으며, 60年代 後半부터 70年代 初期에 걸쳐 大規模地域開發에 依한 工業의 地方分散과 함께 大企業系列化의 農村工場이라고 불리워지는 小規模下請工場, 衛星工場, 分工場이 繼續 農村地域에 進出하였으며, 더우기 그 周邊部에는 近代의 家內勞動이 展開되었다.

여기에서는 高度成長過程에서 急成長한 豐田自動車産業이 農村地域에 進出한 下請企業, 혹은 農村地域의 近代의 家內勞動을 基盤으로 어떻게 成長을 하였는가 그 一端을 紹介하고자 한다.

먼저 高度成長過程에서 豐田自動車の 生産臺數는 1960~70년에 걸쳐 約 15倍 以上 増加하였다. 即, 1960年の 生産臺數는 10萬臺를 조금 上회한 程度였지만, 1965년에는 約 50萬臺, 1970년에는 160萬臺를 超過하였다. 이와 같은 自動車生産의 飛躍적인 増大는 當然히 豐田自動車の 從業員數를 大幅 増加시켰지만, 從業員數의 増加率은 生産臺數의 増加率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이었다.⁽¹⁾ 이 秘密은 豐田自動車産業이 스스로 施行한 強力한 合理化와 下請關連企業의 二段, 三段에 걸친 勞動力의 動員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豐田自動車株式會社『豐田の あゆみ』1978年 3月].

그런 가운데 豐田市에 隣接하는 農村地域에는 豐田自動車の 生産臺數가 飛躍적으로 増加되기 시작한 1965年代에 들어서서 關連下請企業의 分工場이 持續적으로 進出하게 되었다.⁽²⁾ 農村地域에 進出한 自動車關連下請企業의 分工場은 어느 것이나 從業員 100人 前後의 小規模工場이며, 그 地域의 農家勞動力을 調達하는 소위 農村工場이었다. 이들 工場의 賃金體制는 日給月給制가 支配的이며 家計補充의 低賃金이다. 勿論 豐田自動車の 急成長에 따른 農村勞動力의 動員은 以上과 같은 農村工場에 依한 것과 그 以外의 下請家內勞動, 內職 等の 形態로도 이루어졌다.⁽³⁾

以上과 같은 農村工業化의 展開에 依하여 農村地域에 弱電部品, 精密機械部品, 自動車部品, 縫製加工 等の 下請企業이 進出하였으며, 또한 그 周邊에 外業部로서의 近代의 家內勞動·內職이 擴大되어 高度經濟成長의 實現을 爲한 뒷받침의 하나로서 低賃金勞動力을 農村地域에서 大量調達하였다.

이와 같이 1960年代 後半 부터 70年代 初에 걸쳐 既存工業地帶와 都市의 過密化 現狀 때문에 資本에 對한 低廉한 土地의 勞動力을 追求하여 農村工業化가 急速히 展開되었다. 한편 當時의 農業事情은 機械化가 進展되었으며, 基本農政이 意圖하였던 「自立經營農家」의 育成은 計劃대로 進展되지 못하였고, 게다가 쌀 過

(1) 豐田自動車の 從業員數는 1962年 12,600名, 1966年 24,000名, 1971年 41,080名이었다. 豐田自動車株式會社『豐田の あゆみ』1978.

(2) K産業 足助工場은 本社 工場이 豐田市內에 있는 K産業의 分工場이며, 自動車用部品을 製造하고 있다. 從業員은 76名이며, 그 중에서 女子가 51名, 女子從業員 中 31名은 40歲 前後의 農家主婦이다. 그리고 T工業 下山工場은 豐田市の T工業이 1967年 事業擴張을 爲하여 下山村에 建設한 分工場이다. 이 工場에서도 두 種類の 自動車部品을 製造하고 있으며, 從業員은 男子 60名, 女子 51名으로 女子從業員 中 50名이 40歲 前後의 農家主婦이다.

또한 N工業 下山工場은 自動車用內裝品의 品·메이커인 N工業이 事業擴張에 따른 人員確保를 爲하여 1968年 下山村에 建設한 分工場이다. 從業員數는 146名으로 그 中 男子 58名, 女子 88名이며, 女子從業員 中 1~2名을 除外한 나머지는 모두 農家主婦이다. 豐田自動車株式會社『豐田の あゆみ』1978.

(3) 家內勞動의 內容을 보면, 研磨, 프라스틱成型 및 고무成型 等, 매우 多種多樣하다. 이들 下請家內勞動이나 內職의 工賃이 대단히 낮다. 가령 고무成型의 內職은 時間當 200円 程度에 不遇하여 主로 子女를 扶養하고 있는 家庭主婦나 老人의 內職으로 되어 있다. 豐田市 周邊農村에는 그와같은 農家の 納屋工場이 적어도 500~600個 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豐田自動車株式會社『豐田の あゆみ』1978.

剩狀態가 表面化하여 農政은 「總合農政」⁽⁴⁾으로 轉換하였다.

日本政府의 「總合農政의 推進에 對하여」(1970年)라는 報告書에 依하면 「農業構造의 改善을 꾀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指摘하면서, 「轉職에 따른 離農에 對해서는 中高年齡層을 包含한 모든 轉職者가 有利하고, 또한 圓滑하게 轉職할 수 있도록 環境條件을 整備한 必要가 있지만, 특히 住居를 移轉하지 않고 通勤形態에 依한 他産業에의 就業機會를 創出하기 爲하여 農地利用을 調整하면서 工場의 地方分散을 積極的으로 또한 計劃的으로 促進한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即, 「總合農政」의 一環으로서 農村工業化가 重要視되었으며 1971년에는 農村地域工業導入促進法이 制定되어 施行되었다.

農村地域工業導入促進法(一名 農工法)의 內容을 簡單히 살펴보면, 農村地域에의 計劃的인 工業導入을 促進하기 爲하여 計劃的인 農地轉用에 依한 工場用地의 造成, 即, 農村地域으로의 工業導入의 基盤造成에 政府가 積極的으로 援助함과 同時에 進出企業에 對해서는 稅制, 金融面에서 惠澤을 주며, 더욱이 工業導入에 따른 離農轉職者 및 離農轉職者를 雇用한 進出企業에 對하여 政府가 一定의 援助를 준다는 것이다. 그 目的은 「農業構造의 改善을 促進하며, 近代의 農業을 育成하기 爲하여서는 中高年齡層을 多數包含한 就業構造의 改善을 꾀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農政上의 問題를 解決함과 同時에, 다른 한편 都市에 있어서 工業立地의 過密問題의 緩和과 安定的이며 低廉한 勞動力과 土地를 確保한다는 財界의 要請에 依한 것이며, 이는 곧 「一石二鳥」의 意味를 갖는 것이었다.

또한 農業政策의 側面에서 그것은 農村地域에의 工業導入→零細不安定兼業農家階層의 安定兼業農家階層으로의 轉換→安定兼業農家階層의 離農・農地流動化→中核의 農家로의 農地利用權의 集中・集積→中核의 農家の 規模擴大→農業構造의 改善이라는 것이었다.

2. 農村工業開發을 爲한 政府의 政策

日本은 農村地域에의 工業導入을 促進시킬과 同時에 農業従事者가 導入되는 工業에 圓滑하게 就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工業導入과 相應해서 促進해야 할 農業構造의 改善을 推進하기 爲하여 強力한 農村地域 工業導入實施計劃을 推進하였다. 以下에서는 計劃達成을 爲한 政府의 몇 가지 重要한 措置에 對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稅制 및 金融上的 優待措置

첫째 稅制上的 優待措置中 國稅에 對해서는 法에 依한 以外에 具體的으로는 租稅特別措置法에 依해 措置되고 있지만 그 重要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個人이 所有하는 工業導入地域內의 農業用地 등을 工場用地로 提供하였을 경우에는 約 500萬圓의 所得稅 特別控除를 認定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地方公共團體가 工業의 導入을 爲한 誘導策으로서 事業稅, 不動產取得稅 또는 固定資產稅에 對하여 課稅免除 혹은 不均一課稅를 行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發生하는 租稅의 減收額에 對하여 一定한 範圍內에서 地方交付稅에 依한 補填措置가 講究되고 있다.

둘째 金融上的 措置에 있어서는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가 農村地域에의 適正한 工業導入을 爲해 日本開發銀行, 北海道・東北開發公庫 및 中小企業金融公庫로 하여금 各種 融資을 하게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製造用 施設의 整備에 必要한 資金의 確保를 爲하여 政府關係金融機關 以外의 一般金融機關의 協力이 必要하므로 農林中央金庫를 包含한 農協系統金融機關으로부터의 圓滑한 融資도 實施하였다. 農協中央金庫는 工業導入地區內에서 製造業用施設로 適合한 것을 新設하거나 增設하는 個人 혹은 法人에 對하여 償還期間 10年 以內의 貸付를 行하였다. 同時에 運轉資金에 對하여서는 設備資金貸付의 對象이 된 業體에 限하여 施設運用に 必要한 範圍內에서 그 貸付期限을 當該設備資金의 貸付期限內로 하고 있다.

(2) 職業紹介 및 雇用對策

農村工業化를 通한 農家就業構造의 改編을 誘導함에 있어서 農家の 就業希望者에 對한 各種雇用對策이 適

(4) 1968年 7月 西村 農業相이 表明한 「總合農政의 展開에 對해서」라는 構想 以後 一般화된 말이며, 그 主된 內容은 지금까지의 營의 増進主義를 指揚하고, 食糧管理制度의 改善, 農産物의 流通構造의 改善 및 土地의 有効適切한 利用 등, 從來의 農業構造改善事業과는 달리 農政全般에 關한 政策을 展開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切히 마련되어야 農業就業者の 轉業이 보다 圓滑히 促進될 수 있으며 또한 農村地域에 位置하는 企業에 必要한 勞動力의 供給이 보다 圓滑해질 것이다. 人口가 密集한 都市地域과는 달리 農村地域에서는 企業이 願하는 各種人口의 動員이 相對的으로 어렵고 이러한 人力動員의 어려움이 나아가서는 農村工業化를 遲延시키는 큰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隣近地域의 農外就業機會에 對한 情報收集, 就業情報의 傳達, 就業希望者에 對한 就業指導 및 相談, 職業訓練希望者에 對한 就業機會의 斡旋 및 提供 등을 網羅하는 雇用對策의 推進이 農村工業化를 促進하는 데에는 必要한 政策課題의 하나이다.

日本은 1971년부터 農村地域工業導入促進法의 發効과 함께 農村工場의 勞動力供給을 보다 圓滑하게 하고 轉業希望者の 就業을 促進시키기 위해서 各種의 雇用對策을 推進하였다.

그 內容을 우선 公共職業安定所의 區域單位에 「農業者轉職對策會議」를 設置하여 農業就業者の 轉職을 爲한 各種對策을 講究하는 地域協議機構로서 이를 活用하였다. 職業安定所에서는 轉業希望者들에게 各種 勞動市場의 情報를 提供한 뿐만 아니라 특히 農業者轉職相談要員을 配置하여 職業指導에 임하였다.⁽⁵⁾ 또한 他地域에 季節的 就業을 하는 出稼就業希望者の 轉職을 促進하기 爲해 各地域에 「農村人材銀行」을 設置하였다.

就業希望者 중에서 職業訓練이 必要한 農民에게는 各地方自治團體의 能力再開發訓練프로그램을 利用하게 하였으며, 訓練期間中에는 1979年 基準으로 月 86,000円の 訓練手當을 支給하였다. 轉職을 希望하는 成人의 경우에는 職業訓練은 細分化된 職種에 對한 短期教育에 重點을 두어 短期間에 就業을 可能하게 하였다.

農業就業者를 새로운 就業環境에 適應시키기 爲하여 職場適應訓練을 實施하여 事業主에게 農業轉職者를 委託雇用시켰다. 그리고 政府는 事業主와 個人에게 各各 給與補助金이나 手當 등을 支給하였다. 또한 公共職業安定所의 紹介로 就業하였을 때 就業자가 住居의 變更이 必要하면 移轉費의 一部를 支給하였다. 職場을 決定하기 爲해 事業場을 訪問한 때에는 그에 必要한 經費까지도 廣域求職活動費의 名目으로 支給하는 등, 農業者の 轉職을 爲해 매우 廣範圍하고 積極적인 雇用對策을 實施하였다.

이와같이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을 爲한 雇用對策은 政府에 依하여 政策的·意圖的으로 推進되었다.

(3) 其他 支援事業

上述한 以外에도 農村地域에의 進出希望企業과 導入希望 町村의 各種情報를 收集하여 最適한 企業을 最適한 町村에 紹介斡旋함과 同時에 實施計劃 策定에 關한 技術적인 助言, 指導를 業務로 하는 專橫機構인 農村地域工業導入促進센터를 設置 運營하고 있다.

또한 工業이 圓滑하게 農村地域에 導入되도록 하기 爲하여 政府와 地方公共團體는 道路,⁽⁶⁾ 工場用地, 工業用水施設 및 通信運輸施設의 整備에 努力하였다.

이와 더불어 農村構造의 改善을 促進하기 爲하여 政府는 農業生産의 基盤整備 및 開發, 農業經營의 近代化를 爲한 施設整備 등의 事業을 促進하였다.

3. 農工法에 依한 農村工業의 實態와 性格

〈表 II-1〉에 依하면 1980年 現在 農工法에 依하여 農村地域에 立地한 企業總數는 2,249企業體이며, 그 中 操業中인 企業數가 1,548企業體(68.8%)이다. 農村地域에 進出한 이들 企業은 소위 內陸型工業이 中心이지만,

(5) 日本에서는 1979年末 現在 296個의 地域協議機構가 設置되어 農業勞動者의 轉職을 爲한 各種對策이 講究되고 있다.

(6) 日本의 道路鋪裝率은 1980年 統計에 依하면, 一般國道 95%(韓國은 1982年 55.3%), 地方道 78%(韓國 1982年 11.0%), 市郡道 37%(韓國은 1982年 12.6%)이다. 一般的으로 道路鋪裝의 經濟的 效果는 다음과 같다.

① 都市와 農村地域間의 走行距離의 短縮과 道路鋪裝의 擴大에 依하여 自動車의 走行速度가 上昇하여 輸送時間이 短縮된다. 이리하여 通勤圈, 餘暇圈, 消費圈 등, 日常生活行動의 廣域化가 可能해진다. 또한 從來 孤立되어 있던 農村地域의 地方中心都市에의 接近이 容易해 지고, 이들 中心都市를 核으로 하여 廣域의 生活圈이 形成된다. 農村地域住民은 從來의 農村에 居住하고 있어도 地方中心都市工場에의 通勤이 可能해진다. 그 뿐만 아니라 醫療 등의 必要不可缺한 社會서비스를 中心으로 한 高度의 都市의 生活水準을 영위할 수가 있다.

② 鋪裝道路의 整備는 産業活動의 市場圈을 擴大한다. 農村에서는 道路鋪裝에 依하여 都市地域에의 農産物의 出荷가 擴大되고, 農産物의 安定供給과 價格의 平準化가 이루어진다.

③ 農村과 地方中心都市의 均衡있는 發展이 可能해진다. 鋪裝道路의 擴大에 따라 鋪裝道路의 隣接地域에 有利한 立地條件의 産業이 定着可能해진다. 이는 또한 工業의 地方化, 農村地域의 商業 및 서비스業의 開發, 信用制度의 確立 등을 促進시킨다. 工業의 地方化는 農村地域의 雇用機會를 擴大하여 離農을 防止함과 同時에 地域間의 格差縮小과 地域의 自立的 發展을 可能하게 한다.

〈表 II-1〉 農工地區에서의 導入企業의 業種

區 分	操業中企業		導入決定企業		計		備 考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企業數	構成比(%)	
食料品製造業	104	6.7	72	10.3	176	7.8	纖維 8.2%
纖維工業	84	5.4	29	4.1	113	5.0	
衣服·기타纖維製品	66	4.3	7	1.0	73	3.2	
木材·木製品製造業	89	5.7	34	4.8	123	5.4	木材 9.4%
家具裝備品	54	3.5	29	4.1	83	4.0	
印刷·紙·紙加工品	38	2.5	13	1.9	51	2.3	金屬 17.5%
出版·印刷·同關連産業	6	0.4	7	1.0	13	0.6	
化學工業	35	2.3	32	4.6	67	3.0	
石油·石炭製品	8	0.5	—	—	8	0.4	機械 27.2%
皮革·同製品	22	1.4	5	0.7	27	1.2	
皮革·同製品	13	0.8	2	0.3	15	0.7	
窯業土石製品	124	8.0	28	4.1	152	6.7	其他 17.5%
鐵鋼業	52	3.4	30	4.3	82	3.6	
非鐵金屬製造業	23	1.5	16	2.3	39	1.7	
金屬製品製造業	197	12.7	77	11.0	274	12.2	其他 27.2%
一般機械器具	115	7.4	64	9.1	179	7.9	
電氣機械器具	171	11.0	43	6.1	214	9.5	
輸送用機械器具	111	7.2	41	5.3	152	6.7	其他 27.2%
精密機械器具	46	3.0	24	3.4	70	3.1	
其他製造業	190	12.3	148	21.1	338	15.0	
合 計	1,548	100.0	701	100.0	2,249	100.0	

(資料)：農村地域工業導入促進センター「農村地域工業導入事業進捗狀況」1980年。

〈表 II-2〉 農工地區導入企業의 資本金規模別 操業企業

區 分	100萬 円未滿	100萬 円以上 200萬 円未滿	200萬 円以上 500萬 円未滿	500萬 円以上 1千萬 円未滿	1千萬 円以上 5千萬 円未滿	5千萬 円以上 1億 円未滿	1億 円以上 10億 円未滿	10億 円以上	不 明	計
實 數	5	38	107	173	532	159	226	90	218	1,548社
比 率	0.3	2.5	6.9	11.2	34.4	10.3	14.6	5.8	14.0	100.0%

(資料)：〈表 II-1〉과 同一。

〈表 II-3〉 農工地區導入企業의 従業員規模別 操業企業

區 分	10人未滿	10~19人	20~29人	30~49人	50~69人	100~ 199人	200~ 299人	300人 以上	不 明	計
實 數	265	219	193	215	272	174	51	56	103	1,548社
比 率	17.1	14.1	12.5	13.9	17.6	11.2	3.3	3.6	6.7	100.0%

(資料)：〈表 II-1〉과 同一。

業種別 内譯을 보면, 電氣機械, 輸送用機械을 中心으로 하는 機械器具가 27.2%로 가장 많고, 金屬 17.5%, 木製家具 9.4%, 纖維 8.2%, 窯業土石 6.7%, 食料品 7.8%의 順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農工法에 의한 進出企業의 規模인바 操業中의 1,548企業을 合算하면, 年間工業出荷額이 1兆 3,947

億円, 雇用従業員數가 10萬 5,600人, 工業用地面積이 4,276ha이다. 따라서 企業當 年間 工業出荷額은 12億
円, 雇用従業員數 70人, 工業用地面積 2.8ha이 된다. 資本金規模別로 보면 1億円 以下가 66.3%이며, 또한
従業員規模別로 보면 300人 以下가 89.7%를 차지하고 있다(〈表 II-2, 3〉參照).

即, 農工法에 依한 進出企業은 中小規模가 많으며, 中小企業基本法에서 말하는 中小企業이 거의 大部分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弱電部品, 自動車部品, 縫製 및 食料品 等, 大企業系列化의 下請工場이 大部分
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II-4-1〉 農工地區 操業企業의 雇用狀況

雇用従業員總數									都市로부터의 還流者의雇用		
移轉從 業員(本 社等으 로부터)	雇 用 者 數								不 明	農家出 身者數	
	農業従事者(農家世帯員으로부터의 雇用者 數 포함)										
	新規學 卒者數	中途採用者數			不 明						
		出稼者									
105,600人	16,011	88,014	45,735	9,379	36,062	1,357	294	1,575	5,195	2,557	
100.0%	15.2	83.3	43.3					1.5	4.9		
		100.0%	52.0	10.7	41.0	1.5	0.3		100.0%	49.2	
			100.0%	20.5	78.8	3.0	0.6				

(資料): 農村地域工業導入促進センター資料(1980年 3月)

〈表 II-4-2〉 性別年齡階層別 雇用者의 狀況

區 分		總 數	性 別			年 齡 階 層 別			
			男	女	不 明	24歲未満	25~44歲	45~54歲	55歲以上
雇用總従業員	實 數	105,600人	61,041	42,238	2,321	27,452	57,737	14,294	3,776
	比 率	100.0%	57.8	40.0	2.2	26.0	54.7	13.5	3.6
農業従業者로부터의 雇用者	實 數	45,735人	23,870	21,580	285	12,680	24,568	6,769	1,433
	比 率	100.0%	52.2	47.2	0.6	27.7	53.7	14.8	3.1

(資料): 〈表 II-4-1〉과 同一.

〈表 II-4-3〉 雇用區分別 就業者數

區 分	總 數	本採用(常用)	臨 時	파트·타임	不 明
雇用總従業員	實 數	105,600人	92,470	6,533	4,583
	比 率	100.0%	87.6	6.2	4.3
農業従事者로부터의 雇用者	實 數	45,735人	40,044	3,283	2,254
	比 率	100.0%	87.6	7.2	4.9
					154
					0.3

(資料): 〈表 II-4-1〉과 同一.

10萬 5,600人의 雇用従業員과 內譯을 보면, 本社 等으로 부터의 移轉従業員이 15.2%, 現地雇用者가 83.3%이다. 現地雇用者中에서 農家世帯員으로부터의 雇用이 52.0%를 차지하며, 農家世帯員으로부터의
雇用은 新規學卒者가 20.5%, 中途採用이 78.8%로 되어 있다. 雇用者의 性別, 年齡別狀況을 보면, 男女別
比率은 雇用者總數에서 男子 57.8%, 女子 40.0%이다. 農家世帯員으로부터의 雇用者는 男子 52.2%, 女

子 47.2%이며, 또한 年齡別 比率는 24歲 未滿 26.0%(農家世帶員으로부터의 雇用 27.7%), 25~44歲 54.7%(同上 53.7%), 45~54歲 13.5%(同上 14.8%), 55歲 以上 3.6%(同上 3.1%)로 되어 있다.

또한 雇用從業員의 雇用形態를 보면, 雇用從業員總數 10萬 5,600人 가운데 常用이 87.6%, 臨時雇用 6.2%, 파트·타임 4.3%이며, 農家世帶員으로부터의 雇用者에 對해서는 常用이 87.6%, 臨時雇用 7.2%, 파트·타임이 4.9%이다(〈表 II-4〉參照).

요컨대 農村地域의 工業導入에 依하여 農家中高年齡層의 轉職, 「恒常的 勤務」에 依한 農外就業增大가 이루어졌지만, 大企業系列化의 中小下請企業이 많으므로 그 賃金水準은 낮다.

勞働省의 調査結果(勞働省職業安定局, 1980年)에 依하면, 〈表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常用者 中에서도 59.2%(男子 56.7%, 女子 62.6%)는 賃金形態가 日給月給制⁽⁷⁾의 勞働者이며, 現地雇用者의 平均月給與總額(보너스 除外)은 〈表 II-6〉에서와 같이 13萬 8,000円(그 中 基本給 10萬 2,000円)이다. 性別로 보면, 男子의 平均年齡 38.0歲가 16萬 6,000円(그 中 基本給 11萬 8,000円), 女子는 平均年齡 35.5歲로 9萬 5,000円(그 中 基本給 7萬 9,000円)이다.

또한 1980年 6~8月의 보너스의 平均支給額을 보면 19萬 8,000円(男子 24萬 5,000円, 女子 23萬 3,000円)이다. 日本에서는 이 程度의 賃金으로 農業에서 完全히 손을 떼기에는 困難한 實情이다.

〈表 II-5〉 農工地區導入企業의 雇用形態別 現地雇用者의 狀況

區 分	計		常用(파트·타임 제외)				常用 (파트·타임)	平均勞 動時間	臨 時 日 雇	回答缺 乏
			月 給	日給· 月給	기 타	회답없음				
計	1,236人 (100.0%)	1,171 [100.0%] (94.7)	399 [34.1]	693 [59.2]	52 [4.4]	27 [2.3]	32 (2.6)	39	19 (1.5)	14 (1.1)
男	707人 (100.0%)	682 [100.0%] (96.5)	269 [39.4]	387 [56.7]	22 [3.2]	4 [0.6]	4 (0.6)	44	12 (1.7)	9 (1.3)
女	529人 (100.0%)	489 [100.0%] (92.4)	130 [26.6]	306 [62.6]	30 [6.1]	23 [4.7]	28 [5.3]	39	7 (1.3)	5 (0.9)

(資料): 勞働省職業安定局『農村地域工業導入就業實態調査報告』1980年.

〈表 II-6〉 農工地區導入企業의 性別 平均給與等 (單位: 千円)

區 分	計	男	女
平 均 給 與			
總 額	138	166	95
(보너스제외) [1980年 6月]	(102)	(118)	(79)
보너스 (1980年 6月~8月)	198	245	133
平 均 年 齡 (歲)	36.9	38.0	35.5

(資料): 〈表 II-5〉와 同一.

어쨌든 農村地域의 工業導入은 現地農村의 就業機會를 增大시켜 在村通勤possible한 條件을 創出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在村通勤安定兼業化→離農→農地流動化라는 元來 目標과 같이 展開되지 않고, 農業으로부터 離農하지 않는 零細兼業農家層을 累積하게 된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農家勞動力의 多就業化가 進行되었 다.

(7) 月 一定한 金額의 給料를 策定하여 농고 勞働者가 缺勤할 때에는 一定金額을 削減하여 支給하는 制度.

Ⅲ. 農村工業開發에 의한 波及效果

1960年代에 들어와서 急速히 展開된 工業의 地方分散은 農村地域經濟에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에 對한 分析은 今後 韓國의 農村工業開發의 研究 혹은 政策樹立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農村工業開發에 의한 農村勞動力構造變化, 農外所得 및 兼業農의 增加와 農業生産性, 農村地域의 産業公害의 擴散 등의 問題와 關連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1. 農村工業開發과 農業勞動力의 構造變化

日本の 工業化의 推進은 農業勞動力構造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産業別 就業者의 構成比를 年度別로 보면, 農業就業者는 1960年 全體就業者의 32.6%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80年 10.9%로 急速히 減少하였다. 그러나 第二次産業에 있어서는 1960年 29.2%에서 1980年 33.6%로 約 1.15배 增加하고 있다(<表 Ⅲ-1> 参照).

<表 Ⅲ-1> 産業別就業者數의 變化

(單位: %)

年 度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産業						
第一次	41.0	32.6	24.6	19.3	13.8	10.9
第二次	23.5	29.2	32.3	34.1	34.4	33.6
第三次	35.5	38.2	43.1	46.5	51.8	55.5

(資料): 財團法人矢野恒太記念會編『數字でみる日本の 100年』國勢社, 1981年.

이와 같은 現狀은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韓國의 境遇와 有似한 現狀이며,⁽⁸⁾ 工業化의 發展은 農業勞動力의 減少를 不可避한 것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日本에서는 農業勞動力의 減少와 함께 提起되는 問題는 農業勞動力의 老齡化(gerontization)와 女性化(feminization)가 擴大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年齡別 農業就業人口의 變化를 보면, 1950年을 基準으로 하였을 때 1960年에는 이미 20代, 30代의 就業人口의 減少現狀이 顯著하며, 80年代 現在 20代, 30代의 男子 就業人口는 1944年의 二次世界大戰 末期보다도 적다. 이와 같은 農業就業人口의 老齡化는 耕地面積이 작은 農家일수록 심하다. 이것은 農家就業人口의 補充率이 零細農家일수록 낮다는 것으로 보아도 明白한 事實이다.

한편 日本의 農家就業構造는 1980年 農家の 戶當 平均家口員數가 4.38人이다. 그 중에서 農業就業者가 1.07人이며, 戶當 營農從事者數는 韓國의 40% 水準이다.⁽⁹⁾ 日本의 戶當 平均耕地面積이 韓國과 有似한 水準임을 考慮하면 營農機械化의 發達로 農業勞動力의 需要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특히 營農從事者의 60% 이상이 女子이므로 日本農家の 營農 및 就業形態는 韓國과는 크게 다르다.

日本農家の 農外部門就業者의 就業形態를 區分해보면, 우선 自營兼業은 매우 낮으며, 農外部門에는 被用者의 比重이 높고 戶當 平均 1.35人의 農家家口員이 被用者로서 就業하고 있다. 그러므로 日本農家の 就業形態는 4人 内外의 家族中 1人이 常時營農에 從事, 1人 혹은 그 以上이 常時農外就業에 일하고 있다. 또, 營農從事者는 男子 보다 女子의 比重이 높고, 農外就業者의 境遇에는 男子의 比重이 높다.

이와 같은 農業就業人口의 老齡化, 女性化는 經濟의으로도 問題가 있지만 또한 社會的 問題로서도 取扱

(8) 韓國의 産業別就業者構成은 1963年 一次産業 63.1%, 二次産業 8.7%, 三次産業 28.2%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一次産業 34.0%, 二次産業 22.6%, 三次産業 43.4%를 차지하고 있다.

(9) 韓國의 경우는 1980年 農家の 平均家口員이 5.11人이며, 그 중에서 營農從事者가 2.49人, 非營農從事者 0.13人으로 農家家口員의 非營農就業이 매우 低調하다. 또한 農家全體의 戶當平均 0.13人의 農外就業者 중에서 0.12人이 俸給者이다. 農村地域의 私企業部門의 就業機會가 매우 制限되어 있다는 點을 考慮한다면, 大部分의 農外就業이 農村地域의 常勤職即, 公務員, 教師 등의 公共部門에 就業하고 있으며, 賃勞動을 中心으로 한 工場就業이나 日雇形態의 勞動者는 매우 적다.

되어야 한다. 經濟적으로는 農業就業人口의 減少過程에서 發生하는 過渡的 摩擦現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社會적으로는 都市의 圃地에서 發生되고 있는 共稼世帶의 子女教育問題, 老人問題 等이 農村의 主婦農家에도 發生하기 때문이다.

〈表 Ⅲ-2〉 日本의 農家就業構造 (1980)

(單位: 人)

	合 計	男	女
自 管 農	1.07	0.46	0.61
自 營 兼 業	0.10	0.05	0.05
農 外 俸 給	0.56	0.38	0.18
農 外 勞 賃	0.79	0.48	0.31
非 就 業	1.86	0.72	1.14
合 計	4.38	2.09	2.29

(資料): 日本農林水産省『農家就業動向調査累年報告書』1981年.

2. 農村工業開發과 農外所得

日本은 第二次世界大戰 後 農業部門의 主要制度改革을 行하였다. 小作農에서 自作農으로 轉換하여 農民의 自己資本蓄積과 農家の 自己投資增加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農民의 社會的 地位가 高揚되어, 自發的 創意를 伸張시켜 農業技術進步의 主體的 條件을 整備하는 役割을 하였다. 1960年代 初에 工業의 地方分散에 關한 立法措置가 採擇되어, 60年代 初부터 農村工業開發이 推進됨에 따라, 農家所得構造는 農業所得에서 農外所得으로 變하기 시작하였다.

農家所得을 年度別로 보면, 1950년에는 農家戶當 平均 211,700円이었으며, 그 가운데 農業所得이 142,900円, 農外所得이 68,800円을 차지하여 各各의 比率은 67.5%, 32.5%로서 農業所得比率이 農外所得의 2倍 以上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5년에는 農家所得이 760,800円으로 增加하였다. 農業所得과 農外所得도 各 各 增加하여 365,200円, 395,600円이 되었지만, 農業所得增加보다 農外所得增加率이 높다. 農業所得은 農家所得의 48.0%, 農外所得은 52.0%를 차지하여 農外所得의 比重이 보다 크다. 그 後 農外所得은 農業所得보다 急速히 增加하여 1980년에는 農家所得 4,524,000円, 農業所得은 905,600円으로 絶對額이 前年에 比하여 減少하였지만, 農外所得은 3,618,400円으로 增加하였기 때문에 農外所得比率은 80.0%까지 上昇하였다.⁽¹⁰⁾

한편 1980年 現在 耕地規模別 農外所得依存現況을 보면, 0.5ha 未滿의 農家所得은 4,605,400円이지만, 農業所得은 150,100円으로 3.3%에 不過하다. 또한 農外所得은 4,455,300円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다. 0.5~1.0ha의 農家の 農家所得은 4,512,800円이지만, 그 가운데 農業所得은 606,100円, 農外所得은 3,906,700円으로 農外所得의 比率이 86.6%이다. 耕地面積 1.0~1.5ha의 農家所得은 4,379,700円으로 耕地規模 0.5~1.0ha의 平均戶當 所得과 거의 같지만, 農業所得은 1,288,300円으로 急増한 反面, 農外所得은 3,091,400円으로 急減하여 農外所得比率은 70.6%에 不過하다. 耕地規模 1.5~2.0ha의 農家戶當 平均所得은 4,380,500円으로 1.0~1.5ha 農家の 그것 보다 약간 크다. 이 階層에 屬하는 農家の 平均農業所得은 1,848,400円으로 42.2%, 農外所得은 2,532,100円으로 57.8%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2.0ha 以上의 大農의 農家所得은 4,634,200円이지만, 그 가운데 農業所得은 2,833,500円, 農外所得은 1,800,700円으로 農外所得比率은 38.9%의 낮은 水準이다.⁽¹¹⁾

以上 言及한 바와 같이 耕地規模가 클수록 農家所得規模가 增大되면서 農業所得規模도 함께 增加하는 反

(10) 韓國의 경우 1980年 農家所得을 100으로 하였을 때 農外所得依存度는 34.8%에 不過하다.

(11) 1981年 韓國의 耕地規模別 農外所得依存度는 0.5ha 未滿의 農家 64.0%, 0.5~1.0ha 農家 36.6%, 1.0~1.5ha 農家 26.1%, 1.5~2.0ha 農家 20.9%, 2.0ha 以上의 農家 17.8%이며 이는 日本에 比해 매우 낮은 水準이다.

〈表 Ⅲ-3〉 日本의 農家所得現況

(單位: 千円, %)

年 度	金 額			比 率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1950	211.7	142.9	68.8	100.0	67.5	32.5
1955	356.2	251.7	104.5	100.0	70.6	29.4
1960	409.5	225.2	184.3	100.0	55.0	45.0
1965	760.8	365.2	395.3	100.0	48.0	52.0
1970	1,393.2	508.0	885.2	100.0	36.5	63.5
1975	3,414.4	1,146.0	2,268.4	100.0	33.6	66.4
1980	4,524.0	905.6	3,618.4	100.0	20.0	80.0

(資料): 財團法人矢野恒太記念會『數字でみる日本の 100年』國勢社, 1981年.

〈表 Ⅲ-4〉 日本의 耕地規模別 農家所得 (1980)

(單位: 千円, %)

	金 額			比 率		
	農 家 所 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平 均	4,524.0(103.3)	905.6	3,618.4	100.0	20.0	80.0
~0.5ha	4,605.4(105.1)	150.1	4,455.3	100.0	3.3	96.7
0.5~1.0	4,512.8(103.0)	606.1	3,906.7	100.0	13.4	86.6
1.0~1.5	4,379.7(99.9)	1,288.3	3,091.4	100.0	29.4	70.6
1.5~2.0	4,380.5(100.0)	1,848.4	2,532.1	100.0	42.2	57.8
2.0~	4,634.2(105.8)	2,833.5	1,800.7	100.0	61.1	38.9

(資料): 日本農林水産省『農林水産統計』1982年.

〈表 Ⅲ-5〉 日本의 都農間所得格差

(單位: 円)

年 度	都市勤勞者 1戶當所得 (A)	農家 1戶當所得 (B)	$\left(\frac{B}{A}\right)\%$
1957	391,968	367,800	93.8
1960	490,740	449,000	91.5
1965	821,028	728,724	88.8
1970	1,384,548	1,591,900	115.0
1975	2,897,184	3,878,300	133.9
1980	4,248,000	5,592,000	131.6
1982	4,752,000	6,048,000	127.3

(資料): 日本經濟企画廳『國民生活白書』各年版.

面, 農外所得規模는 이와 反對로 그 比重이 漸次 減少하고 있다. 또한, 農家の 耕地規模別 所得格差는 耕地面積 1.5~2.0ha의 農家所得을 100으로 하였을 때, 0.5ha 未滿의 農家所得이 105.1%, 0.5~1.0ha은 103.0%, 1.0~1.5ha은 99.9%, 2.0ha 以上은 105.8%이다. 따라서 農外所得增大는 農家階層間 所得格差를 緩和시키는 데 重要な 役割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²⁾

(12) 1981年 韓國의 農家階層間 所得格差는 1.5~2.0ha의 耕地規模의 農家所得을 100으로 보았을 때, 0.5ha 未滿 51.0%, 0.5~1.0ha 64.6%, 1.0~1.5ha 81.0% 2.0ha 以上 126.1%이다. 따라서 農家階層間 所得格差가 日本보다는 훨씬 크므로 農外所得增大가 시급하다.

다른 한편 都・農間の 所得格差를 보면, 1970年 農家 1戶當 所得이 都市勤勞者 1戶當 所得을 上回하기 시작하여 1982年 現在 都市勤勞者 1戶當 所得에 對한 農家 1戶當 所得의 比率은 1.0 : 1.3이 되었다.⁽¹³⁾

3. 農村工業開發과 兼業農問題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은 耕地規模別農家所得格差가 거의 없다. 그 理由는 經營規模가 작을수록 農外所得比重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日本은 高水準의 農外所得에 依하여 農家間 所得格差를 縮小하는데 成功하였다.

1980年 農家戶當 平均耕地面積은 日本의 境遇 1.17ha, 臺灣 1.04ha, 韓國 1.02ha로서 거의 같은 水準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經濟發展에 따라서 農外就業機會가 增大되지만, 地價의 上昇 및 機械營費에 依하여 餘暇時間을 利用한 營農이 可能하기 때문에 農地를 賣却하지 않고 兼業農이 되기 때문이다.

日本은 1980年 現在 全體農家 가운데 겨우 13.3%만이 專業農이며, 86.7%가 兼業農이다. 兼業農 가운데 所得의 50% 以上을 農外所得에서 얻고 있는 第二種兼業農家가 全體農家の 65.1%를 차지하고 있다. 所得의 50% 未滿을 農業部門에서 얻고 있는 第一種兼業農家は 全體農家の 21.6%를 차지하고 있다.⁽¹⁴⁾

日本은 1963年 처음으로 農外所得이 農業所得을 上廻하여 1972年 農民 1人當 可處分所得이 非農民의 그것을 凌駕하였다. 經濟發展 初期에는 農外就業이 工場의 單純勞動者, 農家副業經營店員 및 店舖運營 等の 形態로 시작되었지만, 經濟成長이 繼續됨에 따라서 地方中間都市의 製造業이나 서비스業에 通勤하는 形態로 되었다.⁽¹⁵⁾ 이와 같은 就業機會와 就業分野의 擴大는 産業分散과 交通手段의 發達에 依하여 可能하여졌다.

經營形態에 依한 專・兼業別 農家所得을 보면, 1980年 現在, 專業農家の 平均戶當 所得은 2,810,900円이며, 그 가운데 農業所得은 2,371,400円으로 農家所得의 84.4%를 차지하고 있다. 그 反面 農外所得은 439,500円으로 15.6%에 不過하다.

한편, 第一種兼業農家の 農家所得은 4,792,800円이지만, 그 가운데 農業所得은 專業農家에 比하여 높은 3,166,100円(66.1%)이다. 反面, 農外所得은 1,626,700円으로 農家所得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第二種兼業農家の 所得은 專業農이나 第一種兼業農보다 높은 4,899,400円이지만 農業所得은 急減하여 436,900円(8.9%)에 不可하다. 그 反面 農外所得은 4,462,500円(91.1%)의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日本의 農家は 農業所得만으로는 家計費를 全部 充當할 수 없는 實情이다. 專業農에 있어서도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는 73.7%에 不過하다. 第一種兼業農家の 家計費充足度는 78.5%이지만, 第二種兼業農家の 家計費充足度는 10.6%의 매우 낮은 水準이다(〈表 Ⅲ-7〉 參照).

日本에서는 第二種兼業農家の 急速한 增大로 農業의 解體危機가 學者들 사이에 深刻하게 論議되고 있는

〈表 Ⅲ-6〉 日本의 專兼業別 農家所得 (1980)

(單位: 千円, %)

	金 額			比 率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專 業 農 家	2,810.9	2,371.4	439.5	100.0	84.4	15.6
第一種兼業農家	4,792.8	3,166.1	1,626.7	100.0	66.1	33.9
第二種兼業農家	4,899.4	436.9	4,462.5	100.0	8.9	91.1

資料: 日本農林水産省『農林水産統計』1982年.

(13) 韓國의 農家一人當所得은 都市勤勞者의 그것에 比해 1970年 65.8%, 1980年 61.8%에 不過하다. 農家所得이 都市家計所得보다 낮고, 農民一人當所得이 都市民一人當所得보다 낮은 것은 農民의 農外就業機會가 低調하기 때문이다.

(14) 韓國의 專業農家比率은 1980年 統計에 依하면, 76.2%. 兼業農家は 23.8%이며, 兼業農家 가운데 第一種兼業農家は 13.7%, 第二種兼業農家は 10.1%의 매우 낮은 水準이다.

(15) 日本의 農家世帯員의 他産業의 就業을 爲한 流出形態는 1963年 轉出 47.0%, 通勤 53.0%, 1970年 轉出 29.6%, 通勤 71.4%, 1980年 轉出 24.1%, 通勤 75.9%로 變하였으며, 이는 農村工業化를 爲한 農村下部構造開發에 依하여 在村 通勤이 増加되었음을 意味한다.

〈表 Ⅲ-7〉 日本の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 (1980)

	農業所得(千円)	家計費(千円)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
全國 平均	905.6	3,935.5	23.0
~0.5ha	150.1	3,896.9	3.9
0.5~1.0	606.1	3,884.6	15.6
1.0~1.5	1,288.3	3,871.6	33.3
1.5~2.0	1,848.4	4,063.1	45.5
2.0ha~	2,833.5	4,186.6	67.7
專 業 農	2,371.4	3,217.2	73.7
第一種兼業	3,166.1	4,032.3	78.5
第二種兼業	436.9	4,107.7	10.6

資料：日本農林水産省『農林水産統計』1982年.

〈表 Ⅲ-8〉 日本の 専・兼業農家別 主要經營指標 (1978)

	耕地面積(a)	農業專業者 (人)	自家農業勞動 (人)	水稻作比率 (%)	農業勞動10 時間當純生 産(円)	耕地 10a當 純生産(千円)	農業固定資本 千円當純生産 (円)
專 業 農	152.4	1.71	4,125	20.1	6,320	175.6	659
第一種兼業	186.1	1.44	3,958	33.1	7,813	167.4	800
第二種兼業	72.6	0.24	1,248	56.9	4,496	78.6	463

資料：日本農林水産省『農家經濟調査』1981年.

實情이다. 예를 들면, 總農家戶數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0.5ha 未滿의 第二種兼業農家の 境遇, 農家所得 가운데 農外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이 約 81%이며, 農外所得에 依한 家計費充足度가 121%에 達하여 平均的인 兼業所得만으로도 家計費를 充足하고도 남는 狀態에 있다.

따라서 이들 第二種兼業農家の 農業意慾과 生産性은 專業農家に 比하여 매우 低調한 實情이다. 그들은 農業을 自給의 色彩가 강한 副業形態로 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農産物生産費의 減少나 營農의 効率性에 對하여 거의 考慮하지 않는 境遇가 많다. 二重就業의 性格上 勞動力을 減少하기 爲하여 土地利用度를 낮추어 可能한 限, 별로 勞動力을 使用하지 않는 作物, 特別 機械化가 比較的 容易한 쌀 生産을 主로 함으로써 營農을 單純化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國民全體가 指向하는 目標에 合當하지 않다.

이와 같이 兼業農의 增加는 自然的으로 土地의 流動性을 낮춤으로써 耕作規模를 擴大하고자 하는 農民에게 困難을 주게 된다. 專業農에서 兼業農으로 轉換하는 農家は 一般的으로 耕作規模와 家畜數를 減少시키며 土地利用度를 떨어뜨려 資本裝備나 農機械의 効率을 減少시킨다. 이러한 現象은 結果적으로 地價의 昂騰과 農業의 投資意慾을 떨어뜨리는 結果를 招來한다.

〈表 Ⅲ-8〉은 專業農과 兼業農의 生産性格差를 나타내고 있다. 全體農家數의 65%를 차지하는 第二種兼業農家の 土地生産性은 專業農家の 44% 水準에 不過하다. 또한, 勞動生産性과 資本生産性도 兼業農은 專業農의 70% 水準이다. 第二種兼業農의 生産性이 이와 같이 낮은 理由는 農外就業과 兩立하기 爲한 農作物의 選擇, 即, 水稻作에 單一化하는 傾向이 强하며, 勞動力을 相對的으로 많이 必要로 하는 部門을 回避하고 있기 때문에 週末, 이른 아침, 혹은 休日에 農作業을 하기 爲하여 過剩機械化를 推進함으로써 單位當 固定資本裝備率이 높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은 農業部門의 所得格差問題를 農外就業機會의 擴大와 그에 따른 兼業農家の 増加로써 解決하였다. 그러나 兼業化가 深化됨에 따라 農業經營이 單純粗放化되었으며, 高農産物價格과 食糧需給의 不均衡問題를 惹起시키고 있다. 特別 餘暇를 利用하여 農作業에 容易한 水稻作에 偏重되어 있기 때문에 過剩生産되는 쌀의 生産調節이 容易하지 않고 不足한 農作物은 勞動力不足 등의 事情으로 因하여 生産을 忌避하기 때문에 農産物의 需給不均衡問題를 惹起시켜 農産物의 價格上昇을 急速히 誘導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兼業農의 增加는 農村의 所得増大를 가져다줌으로써 農村의 貧困問題를 解決하였을 뿐만 아니라 工産品市場을 擴大시킴과 同時に 二重就業에 依하여 人口의 都市集中을 抑制하는 등, 肯定的인 効果도 크다.

4. 農村工業開發과 公害問題

農村工業開發로 因하여 農村地域에 産業公害의 擴散問題가 惹起된다. 特히, 農村地域은 都市와는 달리 國民에게 食品을 供給한다는 觀點에서 보면, 農地가 公害에 汚染되었을 境遇 이를 回復하기 爲해서는 長期間이 所要되므로 産業公害의 農村擴散問題는 우리들에게 많은 關心을 모으게 한다.

産業公害의 代表的인 것은 農業用水汚染, 農産物汚染 및 農村環境汚染 等이다. 이러한 汚染의 原因은 大氣汚染과 水質汚染이지만, 大氣 및 水質汚染의 原因은 工場에서 發生되는 産業廢棄物이다.

日本에 있어서도 農村工業開發로 因한 大氣 및 水質汚染問題는 農業生産 뿐만 아니라 漁業에 까지도 至대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農村工業開發로 因한 公害被害에 關한 統計資料의 利用은 不可能하지만, 公害가 深刻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는 몇 가지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熊本縣의 水俣市 近郊地域에서는 工場에서 排出된 有機水銀이 바다에 放流・擴散되어, 이것이 프랑크론→물고기를 거쳐 人間의 體內에 侵入하여 多數의 死傷者를 낸 事實이 있다. 또한 四日市 近郊地域工場에서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 때문에 近郊의 많은 農民들이 慢性呼吸器疾患을 앓게 되었으며, 80餘名에 達하는 死亡者까지 發生하였다.

工場の 産業活動에 依한 公害는 이와 같은 大氣汚染이나 水質汚染뿐만 아니라 騒音, 振動, 土壤汚染, 地盤沈下 및 惡臭, 等を 發生한다.

農村地域이나 都市近郊에 立地한 工場에서 放流되는 廢水는 農作物에 많은 被害를 주고 있으며, 太平洋 벨트地域에 있는 一部 江들이 深하게 汚染되어 있어 이 강물을 農業用水로도 利用하지 못할 程度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産業公害는 單位當 農業生産量까지도 減産시키고 있다.

産業公害問題는 漁業生産에도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 最近 一部地域에서는 農村工業團地에서 流出되는 工場廢水로 因한 赤潮現象⁽¹⁶⁾이 頻發하여 漁業生産에 많은 被害를 입었다.

日本の 専門家들은 農村工業開發로 因한 農村環境汚染問題는 長期的인 側面에서 볼 때 農業生産 뿐만 아니라 國民健康에도 至대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點을 喚氣시키면서 産業公害에 對한 長期對策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Ⅳ.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日本의 農村工業開發과 그것이 農村經濟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서 分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하였다.

첫째,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은 日本의 高度經濟成長에 依한 大都市의 過密化現象(即, 資本과 人口의 集積集中, 地價의 昂騰, 工業用地 및 工業用水의 確保困難, 公害, 交通難, 住宅難 및 勞動力確保困難 等)에 起因하였다.

둘째,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은 長期間에 걸친 政府의 多方面에 걸친 各種支援下에 大企業의 分工場이 農村地域에 進出함으로 이루어졌다.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은 1950年代 後半부터 高度經濟成長과 함께 시작되어 60年代에 들어와서 政府의 高度成長政策이 本格化됨에 따라 急速히 展開되었다. 特히 60年代 後半부터 70年代 初에 걸쳐서 大規模地域開發에 依한 工業의 地方分散과 함께 大企業系列化의 小規模下請工場, 衛星

(16) 海面에 어떤 種類의 浮遊生物이 急激히 發生하여 바다의 색깔이 變하는 現象이며, 그 發生原因은 지금까지의 調査에 依하면, 陸地로부터의 多量의 工場廢水에 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工場 및 分工場이 繼續 農村地域에 進出하였다.

세째,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은 農家階層間 所得格差와 都・農間 所得格差縮小에 큰 役割을 擔當하였다. 그 結果 日本의 農家所得 가운데 農外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은 急速히 增加되었다. 이러한 農外所得의 急速한 增加는 1950年代 後半부터 꾸준히 推進되어 온 農村工業開發의 效果로 볼 수 있다.

네째, 그러나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은 農村地域經濟에 否定的 效果도 가져다 주고 있다는 點이 重要한 問題로 指摘되고 있다. 農村工業開發로 農業勞動力의 老齡化・婦女化의 傾向은 每年 擴大되고 있는 實情이며, 兼業農의 增加로 因한 農業生産性의 低下 등이 큰 問題가 되고 있다. 또한 日本에서는 農村工業開發로 因한 産業公害의 農村擴散으로 農業生産의 減少問題 뿐만 아니라 長期的으로는 國民健康에도 影響을 미칠 것을 憂慮하고 있다.

다섯째, 日本은 農業政策的 側面에서 農村工業導入에 依한 農業構造改善이라는 元來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였다. 即, 農村地域에의 工業導入에 依하여 恒常的勤務의 農外就業이 增大되었지만, 零細兼業農家の 離農이 進展되어 農地가 流動化됨에 따라, 그것이 中核的 農家の 規模擴大에 寄與한다는 元來目標은 達成되지 못하였다.

結論의으로 日本의 農村工業開發의 經驗은 短期間에 工場 몇개만 農村地域에 建設한다고 農外所得의 劃期的인 増大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長期的인 眼目에서 農村工業開發이 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肯定的 效果와 否定的 效果⁽¹⁷⁾, 그리고 農村地域의 工業立地를 考慮하면서 段階的으로 徐徐히 推進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示唆해 주고 있다.

參 考 文 獻

- (1) 唯是康彦, 兒島俊弘 共著『農業經濟學』青林書院新社, 1982年.
- (2) D.I.F. Lucey and D.K. Kaldor, "Rural Industrialization," 1969.
- (3) Jon Sigurdson, "Rural Industrialization in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4) 潘性統「韓國의 經濟發展과 均衡發展의 問題 (1): 農工間 均衡問題를 中心으로」『經濟學研究』韓國經濟學會 第32輯, 1984年.
- (5) 日本農林水産省, 『農家經濟調査』各年版.
- (6) _____, 『農家就業動向調査』各年版.
- (7) _____, 『農林業センサス』各年版.
- (8) _____, 『農村地域工業導入總合指導指針策定調査研究』1975年.
- (9) 梶井功『日本農業再編の戰略』柏書房株式會社, 1983年.
- (10) 豊田自動車工業株式會社『豊田のあゆみ』1978年.
- (11) 農村地域工業導入促進センター『農村地域工業導入事業進捗狀況』1980年.
- (12) 日本勞動省 職業安定局『農村地域工業導入就業實態調査報告』1980年.
- (13) 日本經濟企画廳『國民生活白書』各年版.
- (14) 日本農水産省『ポケット農林水産統計』1982年.
- (15) 韓國開發研究院『農外所得増大를 爲한 綜合對策』1982年.
- (16) Yang Boo, Choe, "Rural Non-Farm Activities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K.R.E.I, 1983.
- (17) 馬場啓之助編『日本農業讀本』東洋經濟新報社, 1967年.
- (18) 財團法人 矢野恒太記念會編『數字でみる日本の 100年』國勢社 1981年.
- (19) 柴田德衛・松田雄孝『公害から 環境問題へ』東海大學出版會 1981年.
- (17) 農村地域에 工業을 導入함에 있어서 當面하는 問題는 多樣하며 매우 複雜하지만, 農村工業開發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有意해야할 點은 아래 附表과 같다.

〈付表〉 농촌지역 공업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항 목	효 과	문 제 점
지역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소득 증대 자원의 유효이용 촉진 관련 수요의 증대 (상업, 하청공업의 진흥) 건설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자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임상승, 노동력 경합에 의한 기존산업의 약체화 진출기업의 지역경제 순환에의 낮은 기여. 기업건설 계획의 지연이나 기업도산에 의한 지역경제의 혼란.
토지이용과 용수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휴지의 공업화에 의한 활용. 시가지의 증가. 용수이용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량농지의 전환. 농지의 잠식. 地價의 앙등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의 장애. 용수이용의 경합과 수자원의 부족.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인구와 노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유출 억제와 과소화에 대한 브레이크, 인구유입. 약년층의 정착. 出稼의 해소, 원거리 통근해소, U-turn 취업기회 확대. 취업 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노동력의 열악화, 부족. 기존기업과 노동력 경합. 중고년령층의 비고용. 저임금.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장해. 사고증가.
농업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구조의 개선(겸업화에 의한 토지집중. 자립경영의 증가). 잠재적 파잉취업의 개선. 도시적 수요증가에 의한 도시형 농업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력 부족에 의한 생산력 저하(농산물 생산비 감소나 영농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음, 경작 포기, 경영규모 축소). 농업의 단순화(미곡 생산에만 주력). 겸업화에 의한 조직의 해체. 파잉기제 투자. 인구증가에 의한 가축공해 발생. 농지가격 앙등에 의한 규모확대 곤란. 기반정비 불충분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조직화 곤란. 정보나 기술부족에 의한 도시형 농업의 곤란.
농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업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생활 수준 향상. 도시적, 섀터리맨적 생활양식화. 도시적 생활환경에 의한 생활의 편리증가. 가사의 합리화. 도시적 자극(통근. 외래자에 의한 의식 변화, 근대화). 생활 행동권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업에 의한 노동의 과중. 특히 주부노동의 과중. 변직근무(잔업. 야근)에 의한 가정생활의 변화. 가사화생. 가정교육의 문제화. 노인문제. 도시의 諸惡이 가정에 침투함(공해. 연배감결여 등). 생활비 지출의 불균형.
사회. 생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적 제시설 증대(상점, 위락 시설, 공원,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 도로, 교통의 개선. 시가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해문제 } 集落環境의 劣惡化. 混住문제 } 농촌 커뮤니티의 변질, 붕괴. 경관파손. 도시적 제시설 정비의 지연에 의한 불균형. 시가지의 과밀화와 농촌지역 과소화의 2중구조. 도시화 속크. 노동조합 활동의 미경험에서 오는 혼란.

항 목	요 과	문 제 점
지방자치제의 행정 및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稅收증대(고정자산세, 지방세). • 행정의 근대화, 합리화. • 계획행정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량 증대와 교통재해 증가 • 공업화 관련 투자 증대(공업용지의 先行 취득으로 인한 재정난). • 사회생활 환경 정비 투자의 증대. • 행정부담 증대(공업대책, 공해 대책 등).